

핵심 요약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통한 가치사슬 최적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1,000가지 이상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개)

비즈니스 가치사슬은 전면적인 디지털 거래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사슬을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활용해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엄청난 데이터(빅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될 전망입니다.

모든 가치사슬(B2B, B2C 등)은 기본적으로 (i)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 (ii) 정보의 흐름, (iii) 자금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주요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즉, 가치사슬의 세 흐름을 모두 최적화한다는 것은 공급자에서 고객에게 이르는 가치사슬 안에서 재화/서비스의 최적(더 신속하고 저렴하고 개선된) 유통에 있어 효율이 극대화('효율 특이점')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가치사슬의 참여자 사이에 정보와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중앙 집중화된 기관의 가치사슬은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효율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 (부분적으로) 분산화된 독립 기관의 가치사슬은 대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재화/서비스, 정보, 자금 공유에 있어) 최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앞서 언급된 세 흐름에 비효율이 발생해 매년 수조의 가치가 낭비됩니다.

이미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은 분산화된 기관이 포함된 가치사슬('혼합형 가치사슬') 내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할 수 있지만, 신뢰가 부족한 참여자 사이에 정보와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은 아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혁신 기술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결합이야말로 혼합형 가치사슬에서 효율 극대화를 (거의)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ORS그룹은 하이퍼스마트계약 (Hypersmart Contract, 'HSC')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이퍼스마트계약은 지능형 커넥터(이더리움 계정이 연결된 스마트 데몬)로, (i) 분산화된 독립 기관이 온체인에 저장한 데이터를 사용해 복잡한 효율/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프체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성화하고, (ii) 실시간 암호화폐 지급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스마트계약 덕분에, 인공지능의 역량을 적용하여 모든 가치사슬 내에서 재화/서비스, 정보, 자금의 흐름에 있어 효율(따라서 수익성)의 극대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ORS그룹은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포춘지 2000대 기업 고객사가 매일 수조에 달하는 디지털 거래를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소위 하이퍼스마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다양한 모듈로 결합할 수 있는 정교한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하이퍼스마트 알고리즘은 전 세계 기관에 판매되는 100가지 이상의 독점 소프트웨어 솔루션(ORS 하이퍼스마트 솔루션)의 구성 단위입니다(www.orsgroup.io 참조).

앞서 언급한 비즈니스와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며 축적해온 당사의 오랜 경험을 활용하여 ORS에서는 현재 100명 이상의 선도적인 알고리즘 연구자와 IT 개발자들이 하이퍼스마트 알고리즘을 분산원장(즉, 블록체인)의 분산화된 정보 로직과 실시간 암호화폐 지급 실행에 결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하이퍼스마트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ORS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제3자에 개방 예정)가 개발되면, 기존 비즈니스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 모두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대폭 개선하고 보다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ORS SA 및 제3자가 개발하는 하이퍼스마트계약, 알고리즘, 그리고 기타 디지털 자산은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에서 ORS의 자체 유틸리티 토큰인 ORS토큰('ORST')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